

광주의 역사 '무등산'의 풍경과 서사를 바라보다

임채욱 사진작가 '무등산' 전

27일까지 은암미술관

'꽃 피우는 윤상원' 작품 눈길

무등산은 광주를 상징한다. 광주는 무등산이기도 하다. '등급이 없는 고귀한 산'이라는 뜻의 무등산은 언제나 맑음이 민초들을 품었다.

역사적 격변기에는 시민들과 함께 아파하며 불의한 시대를 건너왔다. 김준태 시인은 80년 5월 당시 '아아 光州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에서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라고 울부짖었다. 80년 5·18 광주항쟁 당시 무등산은 상처 입은 광주와 시민을 상징했다.

무등산은 일상의 휴식처이자 힐링의 공간이기도 했다. 어떤 이에게는 철학적 사색의 대상이자 자신을 돌아보는 매개체였다. 생전에 '무등산 시인'으로 불렸던 광주 출신 현대시인인 1100여회나 무등산을 올랐다. "나의 산행은 잃어버린 무등산의 원시를 찾아가는 고산고수(高山高手)의 길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애정이 깊었다.

시민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 무등산의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임채욱 사진작가가 오는 27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무등산'을 주제로 사진전을 연다. '무등산 2402'.

끈다.

오는 27일까지 은암미술관(광장 채종기)에서 진행 중인 임채욱 사진작가의 '무등산' 전. 임작가가 지난 1년 6개월간 작업한 무등산의 풍경과 서사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채종기 관장은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작업의 초점이 작가가 아닌 무등산이라는 데 있다"며 "무등산이 주제가 된 시선으로 담아낸 광주 서사와 풍경은 색다른 사유와 감성을 발한다"고 전했다.

임채욱 작가는 서울대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했으며 전국의 명산들을 렌즈에 담아내는 작업을 펼쳐왔다. 개인전과 단체전 등 모두 50여회 전시에 참여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도이치뱅크, 하버시티 홍콩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지금까지 '북한산길', '블루마운틴', '지리산 가는 길' 등 9권 사진집을 펴냈다.

4·19와 5·18로 대변되는 민주화의 지난한 과정이 투영된 것처럼 무등산은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언급한 대로 이번 작업은 작가 시선보다 무등산의 시선을 중심에 놓았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무등산을 주체이자 주인공으로 소환한 것이다.

전시는 모두 4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1부 '광주의 역사를 지켜본 산'에서는 천왕봉을 비롯해 지왕봉, 인왕봉, 서석대, 임석대, 규봉암, 누에봉, 중봉, 장발재 등을 만난다. 눈꽃이 핀 인왕상과 독특한 형상의 임석대는 경외감을 준다.

2부 '무등산 의재길'은 의재미술관과 춘설원 등의 풍경을 담았다. 화가이자 교육자, 사회운동가인 의재의 정신이 깃든 미술관, 의재가 국내외 명사들과

교유했던 공간들이 소개돼 있다. 특히 춘설차 전통을 재해석한 차를 선보이는 '티에디트'도 렌즈에 담았다.

5·18 민주화 길과 연계된 장소도 있다. 제3부 '무등산 오월길'은 금남로, 전일빌딩245, 5·18 민주광장, 전남대학교, 5·18 민주묘지 등은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곳이다. 작가는 작업의 시선을 무등산 정상부터 산 아래로 내려가며 광주시를 보여준다.

특히 3부에서는 '꽃 피우는 윤상원'이라는 작품이 이목을 끈다.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를 형상화한 작품 아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관련 호외 발행 신문(광주일보)이 놓여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바닥에 떨어진 꽃잎은 순교한 희생을 상징하지만, 민주주의로 새롭게 피어나는 의미를 함의한다.

마지막 4부는 '무등산 물들길'에서는 서정적이며 운치가 감도는 사진들을 만날 수 있다. 무등산을 둘러싼 남도의 절경과 영상감, 화상적벽 등이 나온다. 소셜원, 식영정, 환벽당, 취가정, 명옥헌, 광주호의 풍광은 깊은 여운을 선사한다.

한편 문광용 문명비평가는 "무등산을 나 같은 외지인들은 광주의 앞자락을 담당하는 조그마한 뒷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산을 조금이라도 올라가 본 이들이라면 무등산이 얼마나 거대하고 품이 넉넉한 곳인지 금세 알아차릴 것이다"며 "드라이브 한다면 임채욱 작가의 무등산 영상 작품처럼 말려 교향곡 3번과 함께하는 것도 멋진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마굿간 공주의 외출'

자주적이며 능동적인 신여성들

박성휘 'The Women Story' 전, 18일까지 자미갤러리

고전적인 한국 여성상은 순종적이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지배를 받는 피동적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다. 한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상실한, 아니 박탈된 이미지로 그려졌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은 다양한 사회 일원으로 서서 뿐 아니라 변화를 견인하는 창조적 존재로 발돋움했다. 진출 분야에 제한이 없을 정도로 활동 영역이 다변화됐다.

박성휘 작가의 작품 속 여성들은 한국의 정서를 담고 있지만 능동적이다. 간소화된 한복을 입은 신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작가는 오랫동안 여성의 삶과 정체성을 자신만의 철학적 사유와 개성적인 시각으로 구현해왔다. 오는 18일까지 자미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박 작가의 'The Women Story' 전. 화폭 속에 드리워진 여성의 모습과 이야기는 이제를 다.

'마굿간 공주의 외출'은 희극적이면서도 위트가 넘친다. '마굿간 공주'라고 명명한 것부터

이색적이다. 공주라고 부르기에겐 몸매가 비대한데다 호박꽃을 들었다. 머리에 쓴 왕관이 아니라면 공주가 아닌 마굿간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여성으로 착각할 정도다.

그러나 작가는 관람객이 생각하는 일반의 통념을 과감히 깨뜨린다. 자주적이며 능동적이며 자신감이 넘치는 여성을 소환한 것이다. 과거 획일화된 여성상에서 탈피한 신여성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방향이 놓여 있다.

박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여행 속에 갇혀 있는 여성들의 심적 갈등을 위트있는 모습으로 당분간 표현해 보고자 한다"며 "모순이나 자신에게서 분리된 그림자를 역설적인 전환의 복되고 즐거운 함께하는 인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온전한 나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작가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싱가포르 아트페어 등 다수 아트페어와 을사청사 세화전 등 다수 단체전 및 개인전에 참가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꽃 피우는 윤상원' 앞에 놓인 광주일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 호외신문.

따스한 봄바람 따라 불어오는 전통 가야금 선율

고제 가야금병창보존회 정기공연 12일 미로센터... '고제 산조' 펼쳐

따스한 봄날, 전통 가야금의 선율을 따라 고즈넉한 바람이 불어온다. 가야금 병창이 전통과 현대를 잇는 특별한 봄의 연주회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고제(古制)가야금병창보존회(보존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미로센터에서 제8회 정기공연을 연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야금과 거문고, 대금 등 전통 악기를 중심으로 각 연주자들이 복원·계승해온 '고제 산조'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가야금과 새봄, 날다'를 주제로 열리며, 국가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인 성진희 이사장이 기획했다. 25현 가야금 연주자이자 작곡가 김계옥 교수가 함께하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사제 동행의 봄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꾸며진다.

곡우절(穀雨節)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전통 가야금의 울림을 통해 새싹처럼 돋아나는 생명력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성진희 이사장은 "이번 무대는 전통 예술을 계승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 아동에게 문화예술의 매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전통 문화 교육을 통해 세대가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 모델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성진희 고제(古制)가야금병창보존회 이사장.

감성의 계절, 낭송과 함께하는 시의 향연

서구문화원, 6월 27일 '전국 애송시 낭송대회'...5월 15일까지 접수

좋아하는 시를 낭송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힐링을 준다. 시를 읊음으로써 작품이 지닌 고유의 특질을 이해하고 타인들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성이 피어나는 계절, 낭송과 함께하는 시의 향연이 펼쳐진다.

광주 서구문화원은 '제22회 전국 애송시 낭송대회'를 연다. 오는 6월 27일(오후 2시) 서구문화원 다목적실에서 펼쳐지는 이번 낭송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예선대회 접수는 오는 5월 15일까지이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기존 전국시낭

송대회 최고상 수상자는 제한된다.

희망지는 서구문화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애송시 낭송 음성 파일(배경음악 불가)과 낭송시 원문을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예선 통과자는 본선 무대에서 직접 시낭송을 하게 된다. 수상자는 대상(100만원), 금상(50만원), 은상(10만원), 동상, 장려상이 주어진다.

정인서 원장은 "올해로 22회를 맞는 이번 애송시 낭송대회는 시를 통해 감성을 충전하고 다른 이들과 시의 감동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의 아름다



지난해 열린 제 21회 전국애송시낭송대회 장면.

(광주 서구문화원 제공)

다음에 느끼고 표현하고자 하는 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더 나은 영화 더 나은 삶'

광주독립영화관 7주년 18~19일 기획전...GV도

광주에서 제작된 영화들이 광주 시민들과 만난다. 광주 영화인들에 의해 광주에서 촬영된 영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영상인연대는 광주독립영화관 개관 7주년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기획전 '더 나은 영화, 더 나은 삶(Mo' Better Cinema, Mo' Better Life)'을 개최한다.

지난 2018년 문을 연 광주독립영화관은 그간 지역 영화인들에게 물리적·정서적 거점이 되어 왔다. 이번 기획전은 열악한 제작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온 독립예술영화인들을 응원하고, 광주 독립영화의 흐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상영작은 그간 광주여성영화제와 광주독립영화제를 통해 주목받았던 주요 작품들로 구성된다.

기획전의 문은 18일 광주여성영화제 권 단 평공모 수상작들이 연다. 오후 5시부터 허지는·이경호 감독의 '행인', 김은희 감독의 '힘찬이는 자라서', 조한나 감독의 '빈의 뜨개질'이 상영되며, 이어 오후 7시에는 김도연 감독의 '술래'와 심이안 감독의 '뺨고'가 스크린에 오른다.

19일에는 광주독립영화제의 주요 작품들



이 관객들과 만난다. 송원재 감독의 '내 이름', 이경호 감독의 '혼자', 김아솔 감독의 '원샷', 그리고 오윤주·윤수안 감독의 광주극장 90주년 기념작 '광주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관객과 창작자의 이야기가 오가는 GV(관객과의 대화)도 준비돼 있다. 18일에는 '술래'의 김도연 감독과 '빈의 뜨개질'의 조아영 배우가 함께한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성영화제 권 수상작 연출자로, 지역에서 꾸준히 여성의 시선을 작품에 담아온 감독들이다.

19일에는 송원재 감독의 GV가 진행된다. 데뷔 15주년을 맞은 송 감독의 '내 이름'은 수급자 민서와 취준생 서연의 이야기를 통해 먹먹하기만 한 청년의 삶을 조명한다. GV 진행은 김태진 광주청년센터장이 맡는다.

이번 영화제를 기획한 이상훈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사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광주의 영화계는 지역민의 문화 감수성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기획전은 그런 영화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